



인하고등학교장  
김 경 석

올해는 인하고등학교가 개교한 지 23년째 되는 해입니다. 그동안 인천의 명문사학으로서 인향이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들을 비롯한 졸업생, 재학생, 학부모님들의 무한한 관심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까 생각합니다.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저명한 영국의 역사학자인 E.H. 카는 「역사란 무엇인가」란 그의 저서에서 “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”란 이야기를 합니다. 이 말은 곧, 역사란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 현재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거울이며 우리가 앞으로 이를 역사의 지침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내가 살아온 삶의 자취, 즉 나의 과거의 모습이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것과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나의 과거의 모습은 현재를 넘어서서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과거의 발자취는 잊고 지워버리기에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지요. 교지는 인향이 걸어온 역사이자 발자취입니다. 그간에 웃고 울었던 고등학교 시절의 우리들만의 추억이 오롯이 녹아있는 공간입니다. 시간이 흐른 뒤 우리가 지나온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.

이렇게 소중한 교지의 발간이 올해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하니 2010년은 더욱 뜻깊고 기분 좋은 시작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이번에 발간된 교지에는 그간 이것을 만들기 위해 고생하신 선생님과 학생들의 노고가 그대로 녹아들어 있습니다. 이 교지를 통해 3년간의 어려웠던 과정을 이겨내고 졸업하는 졸업생들과 꿈을 일구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재학생, 그리고 항상 학생들을 위해 힘쓰시는 선생님, 학부모님 등 인향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을 안겨드릴 것입니다.

2010년은 호랑이의 해입니다. 호랑이가 기지개를 켜고 세상을 향해 포효하듯이 올해는 인향인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포효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.